

2022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2022 아트경기

# 2022 아트경기

# 아트경기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지역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트경기는 올해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 50인을 선정, 일 년간 6곳의 미술품 유통 전문 사업자와 제휴사인 바른손랩스, 헤럴드아트데이, 롯데백화점과 협력하여 경기도 각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미술품 전시·판매 사업을 선보입니다.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창작자와 유통자를 동시에 조명하고 지원하는 독창적인 사업구조로, 작가와 사업자 간 신뢰가 기반이 된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기획·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다채로운 기획의 미술행사를 선보임으로써 일상 속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트경기는 앞으로도 경기도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작가를 발굴하고 사업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 01

## INTRODUCTION

아트경기 사업구성 ..... 02

## OVERVIEW

행사안내 ..... 03

## PROGRAMS

2022 참여 작가 ..... 10

## ARTISTS

2022 참여 사업자 ..... 60

## PARTNERSHIP

## 아트경기 사업구성 OVERVIEW

24시간, 365일, 아트경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경기도 작가의 작품을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다각화된 미술시장의 형태를 반영, '미술장터'부터 '팝업갤러리', '온라인 사업' 등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 2022 아트경기 미술장터

#### ▪ 기간

서울장터 | 9.16.(금)-9.19.(월)  
 경기장터 | 12.10.(토)-12.31.(토), 월 휴관  
 팝업전시 | 9.23(금)-9.25(일)  
 개인전시 | 1차) 8.2.(화)-8.27.(토)  
 2차) 9.13.(화)-10.11.(화), 일 휴관

#### ▪ 장소

아트조선스페이스(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1층)  
 아트팩토리(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34)  
 아브뉴프랑 판교(경기도 성남시 삼평구 177 동판교로 25)  
 올댓큐레이팅(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20 남한강빌딩 B1층)



#### ▪ 내용

경기도 대표 미술품 전시·판매 행사인 '아트경기 미술장터'는 2022 아트경기 작가 50인 전원이 참여하는 미술축제로 문화예술의 활력이 넘치는 서울 광화문과 경기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서 개최한다. MZ세대와 미술시장 입문자를 주요 관객으로 한 흥미로운 전시 연출과 진입 문턱을 낮춘 가격 구성에 주목해보자. 이와 함께 아브뉴프랑 판교 광장에서 펼쳐지는 작은 미술장터와 올댓큐레이팅이 주목하는 작가 2인의 개인전까지, 다채로운 기획에 풍성함과 활기를 한껏 더한 '2022 아트경기 미술장터'가 올 하반기에 펼쳐진다.

#### ▪ 문의

올댓큐레이팅 010-2618-8640 / atcurating@gmail.com

## 2022 NET FAIR - ART DMZ : 아트경기 업 ↑

- **기간**  
9.30.(금)-10.3.(월)
- **내용**  
<2022 NET FAIR>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계'를 의미하는 DMZ의 의미를 반영, 예술적 연대를 통해 '경계'로 인한 사회적, 국제적 갈등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미술관과 갤러리, 예술가의 창작소가 위치한 파주출판도시에서 호텔아트페어와 온오프라인 동시 중계의 라운드 테이블, 특별도슨트, 그리고 이광기 디렉터 진행의 '라이브 경매쇼'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미술축제가 4일간 펼쳐진다. 아트경기 작가와 과거 작가의 작품 70여점이 함께 전시되는 특별전 <아트경기 업 ↑>에서 작가들의 '도전'과 '만남'의 장을 기대해보자.
- **문의**  
스튜디오 끼 031-8017-8822 / studiokki@daum.net

- **장소**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항(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21-2)  
유튜브 "이광기의 광끼채널"



## TP: Printed Edition

- **기간**  
현장전시 | 10.20.(목)-10.30.(일), 월요일 휴관  
온라인판매 | 상시
- **내용**  
회화, 공예,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 시각 이미지를 다루는 작업자와 함께 원화에서 판화로의 매체 변주를 시도하고 미술품을 소비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는 팝업 갤러리에 주목해보자. 시험프린팅(Trial Proofs)의 약자인 'TP'는 예술가와 인쇄 기술자가 협업하여 만들어내는 작품으로 작가에게는 작품세계의 확장을, 대중에게는 대량생산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에 소장할 기회를 제안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는 팝업갤러리, 그리고 실크스크린 인쇄 체험교육과 판화 공방 투어까지, 다채로운 판화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문의**  
SAA 010-8326-2988 / info@screenartagency.com

- **장소**  
LCDC 서울 DDDMY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17길 10 B1층)  
t-p.shop



## 업클로즈04(UPCLOSE 04)

- **기간**  
현장전시 | 11.3.(목)-11.13(일)  
온라인전시 | 11월 초 오픈
-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미술전시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물 작품이 선호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본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라는 의미의 '업클로즈(UPCLOSE)'는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 고유한 물성, 그리고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는 철학의 중요성을 담아보고자 기획되었다. 올해는 현장전시의 입체적인 감성을 반영한 메타버스 전시공간을 구축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을 온라인에서도 최대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니 온·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경기 작가의 작품을 즐겨보자.
- **문의**  
아트플레이스 02-567-6070 / artplaceseoul@naver.com

- **장소**  
하나은행 H.art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artbuy.co.kr



## 아트페어 부스전

### Kiaf PLUS 부스전

- **기간**  
9.2.(금)-9.5.(월)
- **장소**  
세텍(SETEC) | 참여부스명 "아트팩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 2022 PLAS - JW MARRIOTT SEOUL 부스전

- **기간**  
10.2.(일)-10.3.(월)
- **장소**  
JW 메리어트 14-16층 | 참여부스명 "올댓큐레이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04)

- **문의**  
올댓큐레이팅 010-2618-8640 / atcurating@gmail.com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미술품 렌탈

- 기간**  
6월-12월
- 장소**  
경기도 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공공기관 | 경기도의회·경기도청(수원), 통일부-정부서훈청사(서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  
민간기업 | 우리은행 TCE 시그니처센터(서울), 신한PWM반포센터(서울), NH농협(안산, 안성)
- 내용**  
판매 중심의 비연속적인 미술품 거래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거래로서 미술품 렌탈에 주목해보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사업자의 컨설팅이 반영된 미술품 설치·관리를 진행한다. 로비, 접객실, 사무공간 등 일상 공간 곳곳에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임직원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과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문화캠페인을 실행하게 한다. 미술품 렌탈 사업은 소비자에게는 미술품 구매 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보관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이, 예술가에게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
- 문의**  
칸KAN 02-536-7195 / kanarts2021@naver.com

이광기의 라이브 경매쇼 - 아트경기 선정작가

- 일시**  
5.25.(수)-9.14.(수), 격주 수요일 20:00
- 장소**  
유튜브 “이광기의 광끼채널”
- 내용**  
누구나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이광기의 라이브 경매쇼>는 배우 겸 스튜디오 끼 아트디렉터인 이광기의 진행으로 작가의 작업세계와 작품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시장에 비대면 방식의 미술품 경매라는 신선한 기획으로 시작한 경매쇼는 온라인 분야로의 전환과 확장 가능성에 앞장서고 있다. 수요일 저녁 8시 유튜브 “광끼채널”에서 생중계되는 경매쇼에 진행자와의 실시간 대화와 작품 응찰 기회를 직접 경험해보자.
- 문의**  
스튜디오 끼 031-8017-8822 / studiokki@daum.net



아트경기 x 믹(MEEK)

- 기간**  
8.15.(월)-12.31.(토)
- 장소**  
전시판매 | ca-va.life  
프로그램 | meek.team (11월 오픈)
- 내용**  
<아트경기x믹>은 동시대적인 학문적으로서의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현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사회에 대한 고민을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현장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인적, 장르적 네트워크를 위한 소통의 장을 온라인 공간에 마련함으로써 예술가에게 더욱 넓은 시야와 기회를 주고자 한다. 트렌디한 아트 커머스 플랫폼 “카바라이프” 협업의 미술품 판매는 물론 다학제적 접근을 주제로 한 작품연구, 스크리닝, 세미나 등 유익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니, 동시대 미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경우 놓치지 말자.
- 문의**  
믹(MEEK) 010-5674-9036 / au9036@gmail.com



바른손랩스 NFT 기반 온라인 전시·판매 제휴

- 일시**  
5월~12월
- 장소**  
엔플라넷(nplanet.io)
- 내용**  
바른손랩스는 2021년부터 NFT기술을 활용한 작품 진품 인증과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미술 작품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트경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작가 및 협력사업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NF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작품 판매와 NFT 발행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 작가 작품의 NFT 미술 시장 진출과 미술품 유통사업자와의 온라인 작품 판매 제휴 등 해당 분야의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중이다.
- 문의**  
(주)바른손랩스 02-518-0708 / help@barunsonlabs.com



헤럴드아트데이 미술품 경매·전시 제휴

- 기간**  
자선경매 | 7.16.(토)-7.27.(수)  
온라인경매 | 8.27.(토)-8.31.(수)  
기획전시 | 9.16.(토)-10.5.(수)
- 장소**  
써밋갤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auction.artday.co.kr  
헤럴드아트데이 광고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277)
- 내용**  
헤럴드아트데이는 (주)헤럴드의 자회사로 미술품경매, 기획전시, 공공미술, 교육, 전시홍보 등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문화미디어 기업이다. 온라인 미술품경매를 선도해온 헤럴드아트데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갤러리공간에서의 국내외 우수 작가들의 전시와 공공예술·예술장식품 사업으로의 다각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회사로의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아트경기과 헤럴드아트데이와의 제휴를 통해 기존 미술품 경매시장에 소개되지 않았던 경기 작가들의 시장 진입로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 문의**  
헤럴드아트데이 02-3210-2255 / info@artday.co.kr



● 누구나 참여 가능 ● 작가 한정 진행 ● 작가 한정 진행 + 결과물 공개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일시
아트경기미술장터(3p)	● 미술시장 트렌드 강연 "미술시장의 현주소"	입문 컬렉터를 위한 전문가 초청 국내 미술시장 동향 강연(30인 내외)	아트조선스페이스 9.17(토) 14:00~15:00
	● 유아동 대상 미술체험 교육	직접 그린 그림을 컵에 그대로 입혀 자신만의 컵을 만드는 체험(상시)	아브뉴프랑 판교 9.24.(토) 12:00-18:00
	● 거리공연 '서커스 클래식'	서커스 디아볼로 아티스트 준디아가 선보이는 난버벌 퍼포먼스	9.25.(일) 16:00-17:00
2022 NET FAIR(4p)	● 아티스트 라운드 테이블	2020-2022 아트경기 작가들 한 자리에 초대하는 토크쇼	10.1.(토) 13:00-14:00
	● 전문가 초청 도슨트 프로그램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 특별 도슨트	10.1.(토) 15:00-16:30
	● 컬렉터 라운드 테이블	아트경기 작품 구매 디렉터 2인과 갤러리 대표 2인 초청 토크쇼	지지향 온라인 "광끼채널" 10.2.(일) 13:00-14:00
● 2022 NET FAIR '라이브 경매쇼'	이광기 디렉터 진행의 온·오프라인 동시 실시간 경매쇼	10.2.(일) 15:00-17:00	
TP: PRINTED EDITION(4p)	● 실크스크린 인쇄 워크숍(기초)	실크스크린 인쇄의 원리 과정 배우기. 글자 도안 활용 엽서·티셔츠 제작 (1일 1회, 회당 5인 내외)	LCDC 서울 DDMMYY 10.25.(화)-28.(금) 11:00-12:30 *온라인 모집
	● 판화 멘토링 프로그램(심화)	1:1 진행, 장르에 따른 인쇄방식 탐구와 작가의 작업 세계 확장 도모 (1일 1회, 회당 4인 내외)	10.21.(금),28.(금) 18:00-20:00 *온라인 모집
아트경기 X 미(7p)	● 경기도 판화 공방 투어	판화 공장 현장답사로 작품 제작과정 관찰과 인쇄 기술자와의 만남(10인 내외)	10.23.(일) 11:00-13:00 *온라인 모집
	● 전문가-작가 심화 멘토링	기획자, 평론가, 교수 등과 1:1 매칭으로 작가의 작업세계 점검	하나은행 H.art1 (구. 을지로금융센터) 11.3.(목)-13.(일)
아트경기 X 미(7p)	● 평론가-작가 1:1 비평	온라인 대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평문 콘텐츠 정기 업데이트	artgg.ggcf.kr meek.team 9월-11월 온라인 공개
	● 전문가 초청 간담회	다학제적 연구 기반의 국내외 전문가 초청 (현장진행 후 온라인 공개)	경기상상캠퍼스, meek.team 11월 초 *별도 문의
	● 온라인 스크리닝	대중문화와 이미지에 대한 담론과 2차 생산에 관한 미디어·퍼포먼스 영상 상영	meek.team 11월-12월 온라인 공개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행사 주관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인간]

177x46x140cm\_레진, 폴리우레탄, 면, 합성모피, 바늘, 실\_2020

## 강건 KANG, KUN

b.1988

강건은 2015년 프랑스 렌 브르타뉴 유럽고등미술학교에서 순수미술 전공 학사 졸업(DNAP) 하였고, 이후 2017년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국가고등조형예술학위(DNSEP)를 취득하였다. 그는 인간의 양면성과 타자의 각기 다른 시선들로 재창조되는 개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연약하고 부드러운 재료들을 사용하여 평면과 입체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자아 변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그를 둘러싼 공동체와 문화 안에서 탐구하며, 이러한 개인의 서사를 은유하는 조각의 형태를 연구 중이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아이고>(영은미술관, 2022), <타아상실>(수원시립미술관-아트스페이스 광고, 2021)과 <소셜 클론>(아트스페이스 오, 2019)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공간TYPE, 2021), <생생화화-가능성의 기술>(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2019), <De fils ou de fibres>(CAC Meymac 메이막 아트센터, 프랑스, 2018) 등이 있다.



[왜 계속 흔들릴까]

97x162.2cm\_Oil on canvas\_2022

## 고우리 KO, WOORI

b.1989

고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 불안정한 감정의 기류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회화 물성 실험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15년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에 선정되어 경기도 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잡히지 않는 것들>(2015)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8-2019년 수원문화재단 유망예술가에 선정되었고, 2019년 울산 북구예술창작소 입주작가로 선정되었다. 2021년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지냈으며, 2022년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수원에서 개인전을 10월에 개최한다



[검은 새를 위한 마지막 남은 벌매들]



각 97x145.5cm\_Oil on canvas\_2021

## 권소진 KWON, SOJIN

b.1991

특정한 이야기를 회화의 평면적 화면에 담아내려는 수단으로써의 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립되어온 특질인 '그림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로 이어져 왔다. 권소진의 회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상황성'은 말과 그림, 그림과 말이 반복되는 전환의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이미지들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를 통해 회화가 가지는 정지된 이미지의 특성과, 이를 관통하는 서사의 흐름에 관하여 이상적으로 재구성된 이미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 맺고 이야기를 설명하게 되는지, 파편적인 그림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과 연상 작용을 이용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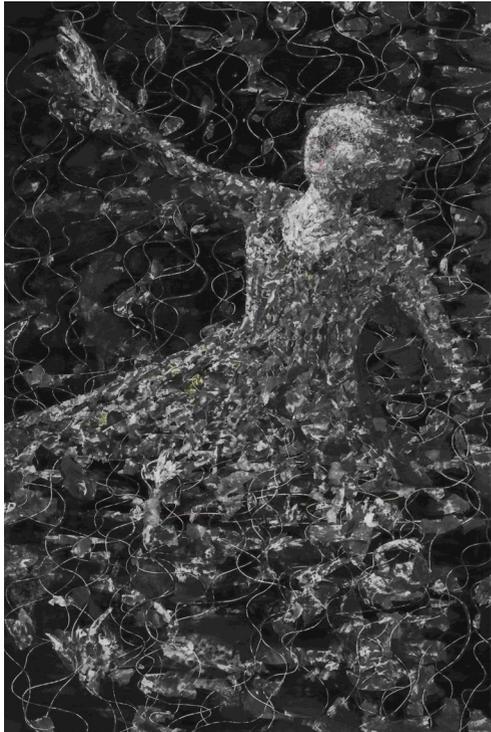
[꽃자왈 #11]

122x182cm\_한지에 목판화\_2020

## 김동기 KIM, DONGKI

b.1980

1980년 출생의 김동기는 추계예술대에서 판화과를, 한예중 조형예술과에서 예술전문사를 졸업했다.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는 <나무들\_서울>(갤러리 조선, 2020), <얇게 패인 숲>(777 레지던스 갤러리, 2020)이 있으며, <에코토피아>(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2020), <공존(共存) 당신과 내가 사는 곳>(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19), <썩.다.>(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18), <층과 사이>(국립현대미술관, 2017)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9년 울산국제목판화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 다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어지러워]  
194x130cm\_캔버스에 한지 콜라주, 먹, 안료\_2020-2021

## 김명진 KIM, MYUNGJIN

b.1971

김명진은 캔버스 표면 위에 한지를 밀착시킨 후 그 위에 탁본한 화선지를 콜라주하고 다시 회화적 성형을 덧입혀 모종의 형상을 연출하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들이 출현하는 어두운 바탕은 심연 같고 혼돈 같아 모든 것이 은닉되고 매몰되어 있는 공간을 암시한다. ... 작가는 이 검은 바탕에서 이미지를 하나씩 건져 올리고 특정한 형상을 이어나갔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 조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듯 구축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먹의 농담 변화와 칠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섬세한 차이를 고려해 원하는 장면을 구성해나가는 시도는 장인적인 기술에 의지해 있다. ... 붓으로 그리는 일보다 종이를 찢고 이를 표면에 밀착시켜 저부조의 깊이와 촉각적인 피부를 만들어내기에 그렇다. 특히나 얼굴 부분을 보면 매우 입체적인 느낌, 마치 흙으로 두상을 빚듯, 종잇조각들을 점토처럼 다루며 하나씩 붙여나가 입체감을 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명진-너무 어두운 화면에 출몰하는 검은 징후들 | 박영택(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연대기적 거북-순수한 여정IX]  
116.8x72.7cm\_Oil on canvas\_2021

## 김수연 KIM, SOOYEON

b.1972

김수연의 '연대기적 거북' 시리즈는, 2019년 '단원미술상'에서 처음 발표한 후 첫 부스개인전 <연대기적 거북-SIAF>(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19)와 <연대기적 거북 2020-시간의 흔적, 부재의 시각화>(갤러리 라포애, 2020),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지원 프로그램 '김수연 개인전' <연대기적 거북- 순수한 여정>(단원미술관, 2021)을 거쳐 그의 전 작업을 아우르는 '시간성'을 지속적인 화두로 삼고 있다. 그는 일련의 은유로서 '거북'을 매개하여 풍경 속에 퇴적한 시간의 층위와 원초적인 것의 회귀를 쫓는다. ... '연대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처럼 "시대 순서에 따라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나열하는" 태도는 시간의 (선형적) 흐름을 전제로 하지만, 김수연은 그 연대기적 시간의 총체를 역사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연대기적 시간이 표상하는 부재의 흔적에 몰입한다.

시간이 그림이 되는 | 안소연(미술평론가)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작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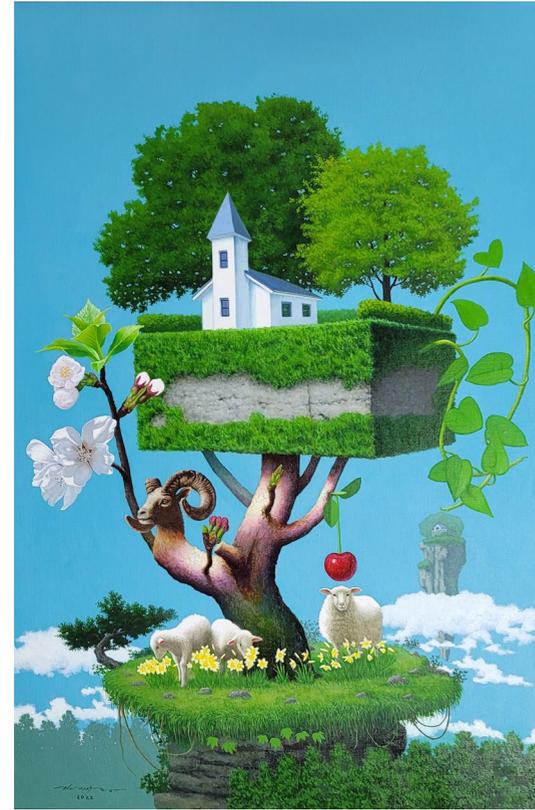
72.7x60.6cm\_Oil on canvas\_2021

## 김윤경 KIM, YUNKYOUNG

b.1978

김윤경은 자연의 수수하고 소소한 것들을 소재로 삼아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행복했던 기억들을 시공을 넘어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아련한 추억들을 끄집어내는 힘이 있는 작가이다.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과 집요함, 성실함이 보인다. 단순히 잘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실체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 재능이 뛰어난 작가이다. 작품에 쏟는 노력과 인내와 재능에 박수를 보낸다.

손여정(시각예술작가)



[공존-말하기의 다른 방법]

60.6x90.9cm\_Oil on canvas\_2022

## 김재종 KIM, JAEJONG

b.1970

김재종은 십여 년간 붓 대신 목조건축에 쓰이는 공구를 작업 도구로 손에 잡아왔다. 목조건축은 캐나다 등 북미에서 주로 집을 짓는 방식으로, 친환경 건축으로의 대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집을 짓고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숲이 훼손되는 것도 보았지만, 이와 달리 숲이 좋아 함께 살기 위해 터를 마련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려나간 나무에서 새순이 올라와 새로운 나무가 되어가는 것도 보았다. 그는 자연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자 한다.



[황홀한 유년 03]  
80x65cm\_장지에 아크릴 잉크\_2021

## 김태형 KIM, TAEHYUNG

b.1976

김태형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생각을 조합하여 새로움과 낯섬, 익숙함과 거리감, 그리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작품을 창작한다. 작품 속 세계는 공포, 걱정, 불안과 같은 내적 고백의 공간이며 때로는 꿈과 희망 등 긍정적 생각이 분출되어 나오는 유쾌한 상상 속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작가는 전통 회화에서 말하는 ‘이상향’과 ‘도원경’을 차용해 자신만의 조형 어법으로 이미지를 조합시키며 작가의 꿈과 기억이 새롭게 편집되어 나온 작품은 새로운 소통의 언어로서 가상현실이기도 하다. 작가는 자신이 만든 이상향에서 사람들이 내적으로 공감 받고 함께 사유하며, 치유받기를 원한다.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 <꿈과 진실 사이> 전시 서문(2017) | 오병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텅 빈 공간 5] 97x130.3cm\_한지에 채색 및 덧붙임\_2021

## 모유진 MO, YUJIN

b.1989

모유진은 시각 이미지를 기반으로 휘발되는 관계와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연구한다. 최근에는 리서치를 통해 개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재해석하여 화면 안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발견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 현상을 평면에 기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변에 많은 관계가 존재하고 그 중 잊고 있던, 휘발되는 관계들에 관심을 두고 또 다른 다음을 준비한다. 우리가 관계 맺었던 순간에서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손길이 닿았던 것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 관계를 맺었다는 것, 관계가 있었다는 것의 증거라는 듯 존재한다. ... 이러한 이야기들은 개개인마다 갖고 있으며, 이런 소소한 대상들을 화면에 담아내고 개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의 이야기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작가노트 중)



[Showcase-red cups]

117x76cm\_Mixed media, plaster of cups,  
acrylic on wood box\_2020

## 문주호 MOON, JOOHO

b.1963

문주호의 작품은 박물관의 개념을 차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기억의 저장고’로서 그리고 ‘축성의 공간’으로서 박물관을 의미생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시도하는 전략은 역설적인 면모를 보인다. 지극히 일상적인 오브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박물관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보잘것없는 오브제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축성의 행위를 가함으로써 그것을 기호학적 문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 선반 형태의 화면에 진열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 석고로 떠낸 복제물로 제시되며 부서진 달걀의 껍질처럼 파편화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의미의 층을 다원화하고 있다. 이때 작가가 차용하는 의미화의 메커니즘이 바로 진열장의 박물관학이다. 진열장은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저장하여 보호하는 장치다. 문주호의 박물관은 평범한 오브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의 확산을 통해 동시대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발언을 시도하려는데 있다.

진열장 박물관(Showcase Museum) | 김영호(미술평론가)



[Knots\_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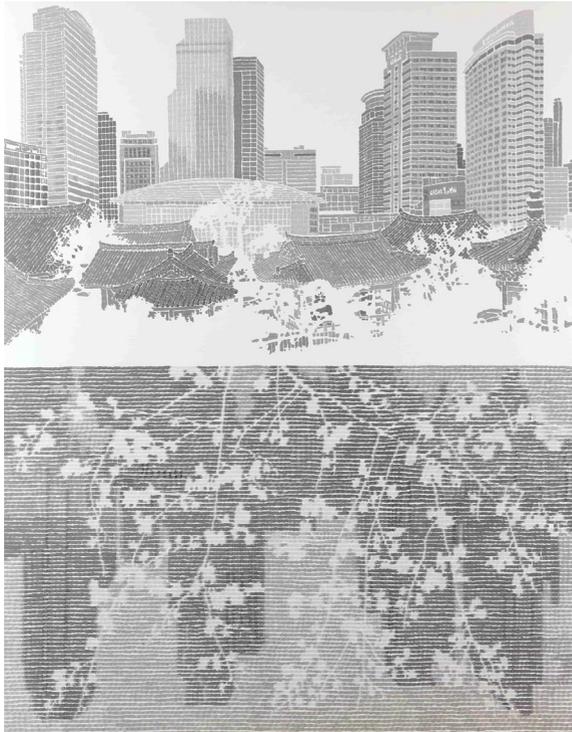
120x130x50cm\_Steel\_2019

## 박민수 PARK, MINSU

b.1979

회전하는 운동을 연속적인 패턴으로 구조화시킨 박민수의 작업이 “수많은 선재를 절단하고, 연마, 용접”하는 고된 창작의 노동을 거쳐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작품의 복잡한 형태를 구상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공간 속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선들을 나열하고 철선을 용접하여 이어 붙여 나간다. 철선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하기 위해서 그가 고안했던 ‘지그’는 창작의 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전시에 선보이지 않지만, 그의 창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공간을 채우는 동시에 비우게 만드는 그의 작업은 관람자의 시점에 따라 일렁이는 물결의 파동과도 같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이러한 시각적 일루전은 묵직한 철조각을 시각적으로 가볍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마치 살아 있는 작품처럼 말이다.

갤러리 거제 <시메트리> 전시 서문 | 김성호(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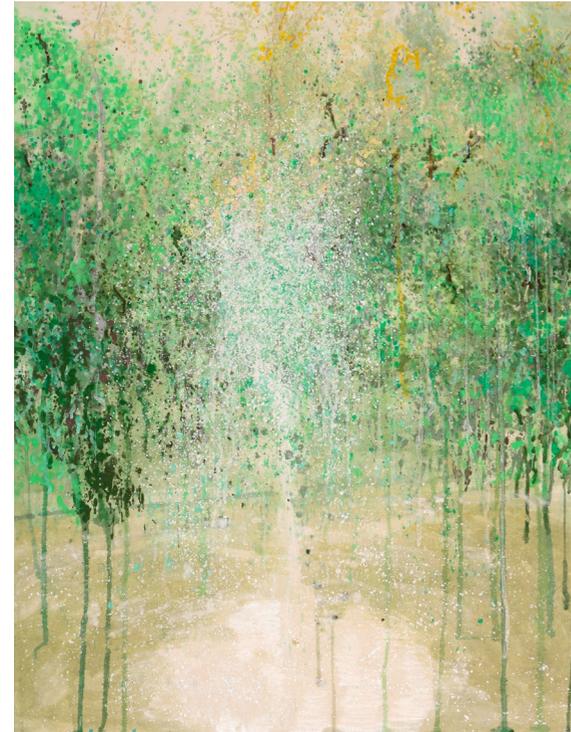
[Landscape-삼성동 2]  
145x115cm\_화선지에 수묵\_2021

## 박병일 PARK, BYUNGIL

b.1978

박병일은 동국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상풍경에 내재된 심미적 공간 표현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화선지 위에 수묵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건축물을 표현하는 블록 형태의 미점준과 담묵을 사용해 독특한 기법으로 발전시켜왔다. 서울, 부산, 베이징에서 13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현재는 삶의 공간에서 보이는 여러 경험 또는 사건의 풍경들을 ‘Landscape’ 시리즈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나의 작업은 도시공간을 거닐며 느끼는 자유로움과 함께 일상적 삶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기록한 수묵 풍경들이다. ... 특히 반영을 통하여 수면 아래로 감춰져 있던 현실에 대한 실제와 허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의 일상의 멈춤과도 연관되어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기억들과 같은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을 화면 곳곳에 다양한 요소들로 채워 넣은 것이다. 붓으로 그리는 공간의 기억들이 작품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를 고대하며 지금의 풍경들을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다.” (작가노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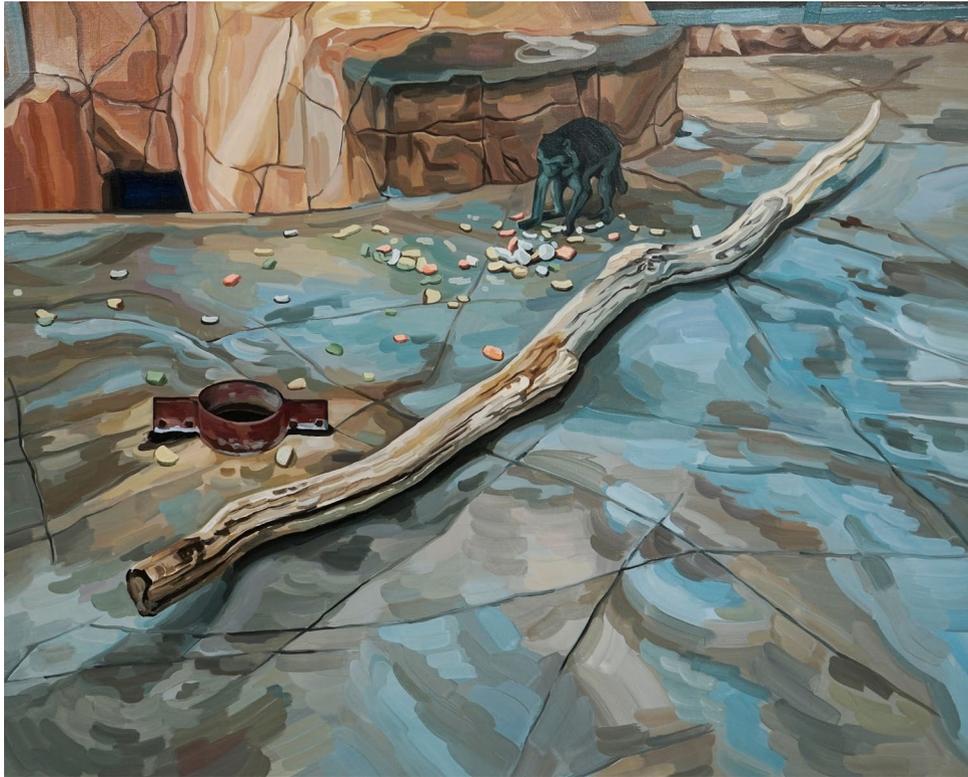


[부유하는 물덩이 #14 - 축축한 숲]  
116.8x91cm\_순지에 채색\_2019-2022

## 박소현 PARK, SOHYUN

b.1993

2018년 3월 <짐과 요동>(공간형, 중간지점)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다. 해당 전시를 기점으로 회화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이자 을지로 3가에 위치한 전시공간 '중간지점'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주로 물이 있는 풍경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어쩌다 나타났다가 잠시 존재하고 곧 사라지는 그 사이사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움직임의 화폭에 담는다. 바라보고 그리는 행위를 통해 곧 사라질 준비를 하는 움직임,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들에 잠시나마 형태를 부여하면서도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일 수 있는 상태를 회화 또는 회화적인 설치로 풀어낸다.



[생존]

72.7x90.9cm\_Oil on canvas\_2022

## 박용화 PARK, YONGHWA

b.1983

박용화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동물원에 주목해 그림을 그려 왔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그가 줄곧 회화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동물원의 풍경 그 자체이기보다는 동물원이 함축하고 있는 이중 의식(ambivalence)으로서의 초현실적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의 그림은,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동물원을 관통하는 언캐니(uncanny)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이를테면, “동물-원(動物園)”이라는 말에 깊숙이 배어 있는 억압[園]의 경계와 원초적이며 원시적인 생명력[動物]의 끝없는 병치 내지는 대치 상태처럼 말이다. 동시에, 그것은 방어와 보호[園]의 장소이기도 하고 박제된 영원한 죽음[動物]을 표상하기도 하며, 그것의 병치도 성립한다. 박용화가 유독 긴 시간 동안 동물원에 집착해 왔던 것은, 그것이 함의하는 초현실적 이중의식의 끝없는 연쇄 작용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안소연(미술비평가)



[바람 #2]

53x65cm\_리넨에 아크릴채색\_2019

## 박종호 PARK, JONGHO

b.1978

박종호는 삶 속에서 망각하게 되는 개인의 존재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개인의 기억과 풍경을 주제로 얇게 물감을 펴 바르며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재개발되는 도시나 동네의 모습은 이제 어디서나 마주하는 동시대의 흔한 풍경이다. 그는 사라지고 변하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최근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억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라지는 것에 무심함과 익숙함, 그로 인한 집단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남큐브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등에서 여덟 번의 개인전을 하였고, OCI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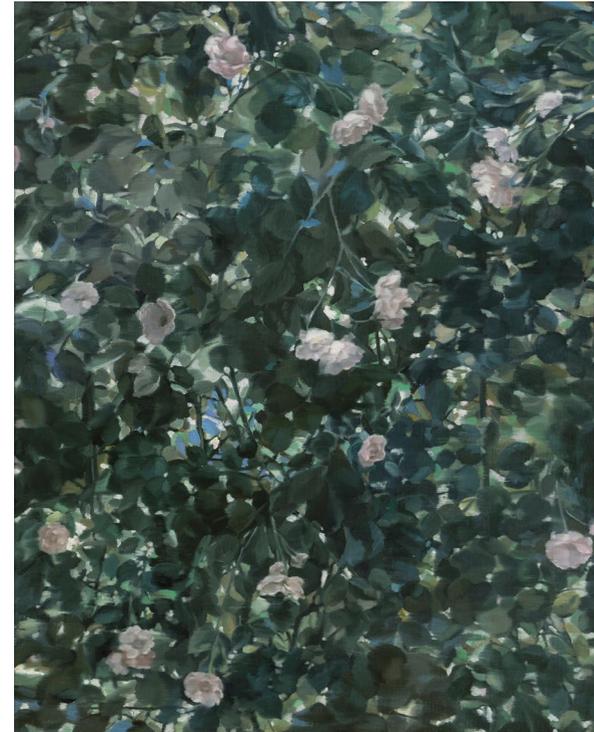
[포말몽환]

210x600cm\_장지에 아크릴\_2021

## 박춘화 PARK, CHUNHWA

b.1978

박춘화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풍경과 일상이라는 소재로 전환하여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으로 제약 받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인해 각자 나름의 '심리적 그늘'이 자리한다고 본 작가는 불안함과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한 공감을 풍경의 장면들을 통해 드러내고 예술이 가진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가는 머물렀던 곳과 마주했던 장면들을 기반으로 익숙한 것을 조금 낯설게, 일상을 다른 차원으로 변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만이 가진 '회화의 힘'을 키우고자 한다.



[여름날]

65.1x50cm\_Oil on canvas\_2021

## 박해선 PARK, HAESUN

b.1982

박해선은 회화를 주 매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어떤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직전의 모습, 지극히 사소하거나 쓸모에 대해 논할 수 없는 모호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장면(사물)을 그린다. 자투리,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양과 흔적, 사라지는 순간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규정되지 못하는 존재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빈 캔버스, 모서리가 부서진 플라스틱 폼, 작지도 크지도 않은 크기로 남은 종이, 붙들고 있으나 비어있는 끈의 안쪽, 깨진 달걀껍질, 나뭇가지 파편, 흙 위에 흩어진 이파리, 사라지는 빛과 그림자의 흔적 같은 것들에 유난히 시선이 머문다. 너무나 사소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거나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 그것을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거나 사라지지 않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다 그 순간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다.” (작가노트 중)



[동그란 기억]  
140x140cm  
\_장지에 채색\_2022

## 배운재 BAE, YOONJAE

b.1992

배운재는 동양화의 전통 종이인 장지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분채와 전통안료를 사용하여 평면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주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나만의 조형성'이다. 작업의 시작점은 작가의 사진첩, 아이디어 스케치 등에서 자주 등장하고 흥미가 가던 대상으로 동그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듯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동그랗고 유기적인 형상들은 작가를 매료시키고, 화면으로 옮겨진다. 그는 작업 구상단계에서 대상을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이들의 형상을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기억에 의존해본다. 이는 실제 대상이 보여주는 고유의 특징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성을 발견하고자 고안한 방법으로,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동그란 형상의 물체를 지속해서 상상해가며 매 순간 구체적이고 상세한 모습과 변화하는 색감을 발견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상법을 통해 대상이 가진 독특한 조형성을 탐구하고, 이를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Vintage books  
-Red Riding Hood]  
45.5x45.5cm  
\_Oil on canvas\_2020

## 서유라 SEO, YURA

b.1984

서유라는 '책'이라는 소재를 상상으로 화면을 재구성하여 주제와 책이 가진 상징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개인전 <고전으로의 초대-Classical books>, 2021년 개인전 <아는 것의 힘>에서 작가는 유럽 여행 중 갔던 장소와 그에 얽힌 인물, 영화, 영화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기억 속 빈티지 책, 시계와 시대의 아이콘, 캐릭터를 소재로 하여 현대에서 잊힌 것들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책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서유라는 캔버스 위에 사실적이고 정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책 쌓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느리게 여행하는 우리를 떠올리곤 한다. 다양한 책들을 보며 판타지·연애소설·고전문 등 해마다 달라졌던 우리들의 취향이 담긴 책장을 마주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페이지를 상상하게 한다.

AK 갤러리 <HI-TEENSI> 전시 서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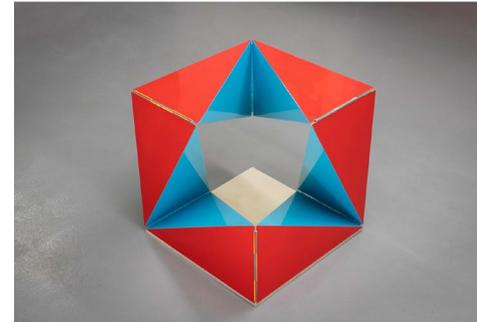
[Playground]  
100x95cm  
\_Acrylic and oil on linen\_2021

## 서지원 SEO, JEE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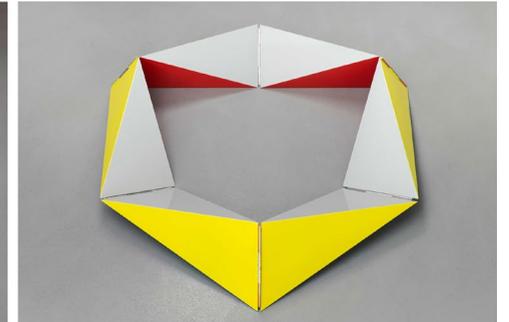
b.1985

서지원의 작품에는 일상의 풍경이 등장하지만, 그 맥락은 애매하다. 그것은 그의 작품에 추상적 어법이 함께 해서만은 아니다. 풍경을 이루는 대상 중 하나인 식물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며, 장소나 장소를 특징짓는 물건들의 기능은 상실되어 있다. 코로나 국면에서 대중들도 많이 보게 된 금지선들은 작품 속 풍경들이 불모나 불구가 된 이유를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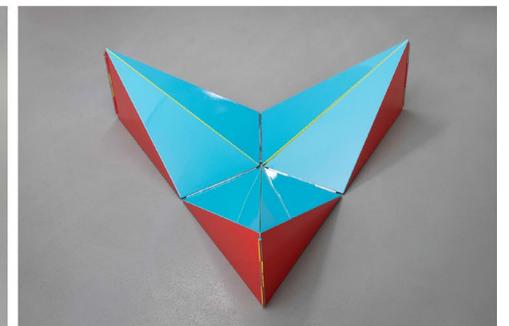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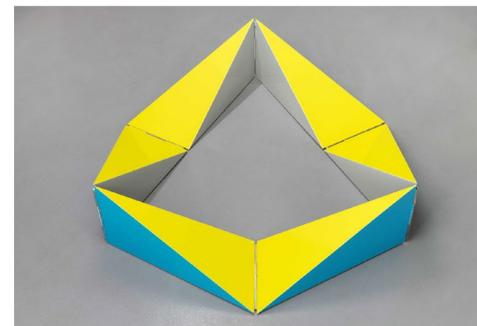
서지원은 자신의 작업에서 메시지와 그리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의식하며, 양자 간의 비율을 생각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는 않는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배경의 회화적 어법은 메시지 전달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하지만, 메시지로 환원될 수 없는 회화에 완전함을 부여하는 요소다. 의식을 벗어난 영역까지 작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이다. 이 미지의 영역에서 우연과 꿈, 몸과 무의식은 총동원된다.



[Invertible cube]



가변크기(53x53x53cm-106x92x30cm)\_스테인리스에 도장\_2021



## 송민철 SONG, MINCHUL

b.1977

하나의 원호가 보이지 않는 나머지 다른 호를 떠올리게 하듯, 어느 하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송민철 작가의 일관된 작업 성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은 언제나 다른 어떤 것들 사이에 놓여 있으며 하나로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 점과 점 사이의 선, 선과 선 사이의 면, 면과 면 사이의 공간으로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 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진과 회화의 본성을 염두에 둔 작품은 영상으로 완성된다. 벽에 걸릴 것은 바닥으로 내려오고 바닥에 놓일 것은 벽에 걸린다. ... 무엇을 보고 인식하는 일은 단순히 자각에 대한 점괄적 반응의 집합이 아니라 형태의 전체적인 통일과 구조의 파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민철은 이러한 지각과 인식의 특징을 시각예술의 장 안에서 끊임없이 일깨우며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모든 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 | 신혜영(미술비평가)



[아는 숲 1]

50x145cm\_장지 위에 콜라쥬, 수채화, 과슈\_2019

## 송하나 SONG, HANA

b.1974

2000년 곱창 끈을 주제로 대안공간 풀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오늘날까지 12번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독일에서 존 암레더(John Armleder) 교수에게 수학하여 작업에 대한 '포장'이라는 개념과 콜라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작업하였다. 특히, 꽃이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한 경우 실제 꽃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인간이 만든 꽃의 상징성들을 담아 작품화한다. 우리 주변의 하찮은 것들을 예술로 보여주고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보는 관람자들도 예술이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경험을 만들고자 한다.

“낮은 방향.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다릴 아이 생각에 쉴 틈 없이 뛰었지만, 신호등에 걸리고 말았다. 내려다본 곳에 있던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낮은 화살표. 누구에겐가 방향을 가리키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한 발짝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하염없이 방향만을 가리킨 채 나아가 가는 것이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화살이 되었으면 싶다. 때론 느린 화살도 존재하지 않을까.” (작가노트 중)



[조용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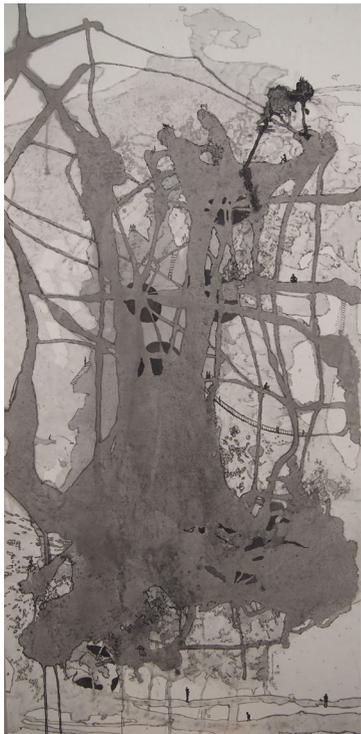
72.7x60.6cm  
\_장지에 흑연과 호분\_2019

## 유진영 YOU, JINYOUNG

b.1991

유진영의 회화작업은 어떤 순간이나 장면을 임의의 도형이나 덩어리로 재조립한다. 대상을 파악하고 연상하는 데에 가장 직관적인 요소인 '색'은 흑연과 흑백의 피그먼트로 대체한다. 기존의 상태에서 사물의 형상과 색은 제거되고 사물의 배열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등 특정한 미술적 문법만으로 재조립한 이미지를 통해 '인식', '지각됨' 이전의, '인상'이나 '분위기'처럼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회화로 표현하려 한다.

“문득 자신이 그득그득 들어찬 세계에 부대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모든 것이 뒤섞이는 순간에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이며 형태도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된다. 제각기 다른 형태와 색을 가진 찰흙 덩어리를 하나로 뭉친 셈이다. 그렇게 여러 색깔의 찰흙이 뭉쳐져 어떤 색이라고 말하기도 뭇한 큰 덩어리를 떼어내, 그 순간의 느낌대로 다시 빚어 나열하는 듯이 그리는 일이 나의 작업이 되었다.” (작가노트 중)



[소금산수 20]

132x68cm\_장지에 먹과 소금\_2020

## 이계진 LEE, KYEJIN

b.1995

이계진은 먹과 소금을 활용한 동양화 작업을 하고 있다. 미술을 제외하고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미술과 함께 해온 그는 5살 때부터 '김충원의 미술교실'을 보며 드로잉을 시작, 이후 예술 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미술대학,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작가로서 미술 전공자의 길을 걷고 있다. 2018년부터 '소금산수'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소금산수'는 실제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 작품의 독창성을 드러내고자 스스로 고민 끝에 창작한 단어이다. 작품의 특징은 추상적 요소인 먹과 구체성을 띤 현대 인물들의 조화로운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금과 먹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사회 속 이상향을 표현하고자 했다.



[안단테9]

112.2x162.3x3cm\_향, 한지\_2021년

## 이명수 YI, MYUNGSOO

b.1965

각자의 삶에 색과 철학이 녹아 있듯이, 캔버스에도 작가만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작가는 유년 시절 자연과 혼연일체 된 활동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놀이를 회상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어릴 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나무나, 산을 회상하고 재해석하여 그만의 숲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 현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나무나, 숲에 대한 애호를 갖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은 공간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릴 적, 창호지 문을 통해 방안으로 투과되었던 햇살의 은은한 느낌과 창호지 구멍을 통해 본 어릴 적 시선의 잔상이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다. 향불로 한지를 뚫고 그 흔적을 막는 반복된 행위로 이미지를 도출했다. 행위는 일정하면서도 불규칙한 패턴을 형성하고, 패턴의 속도감과 방향성은 작품의 조형적인 변주를 주도한다. 약간의 방향과 위치만 바뀌어도 수많은 다른 스토리가 나온다. 의도된 이미지와 의도되지 않은 형상이 어우러져, 하나의 유기적인 상(象)이 형성된다.” (작가노트 중)



[PCS]

11x11x19cm\_친환경 플라스틱, 도료\_2020

## 이병찬 LEE, BYUNGCHAN

b.1987

신도시의 거대한 개발을 목격하고 자본의 에너지를 경험한 그는 도시 안에서 설정된 생태계의 장면을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품 속 거대한 자본의 질량이 주변 공간을 왜곡하고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 모든 대상에 상품성을 부여하는 장면들은 일회성의 상품을 이용한 시각적 연출과 질량을 설명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불확정성을 보여주는 사운드 작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원활한 소비 행위를 할 수 없는 소외감과 열등감의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최근의 작업은 자본의 거대 중력에 이끌려 벗어날 수 없는 위성처럼 살아가는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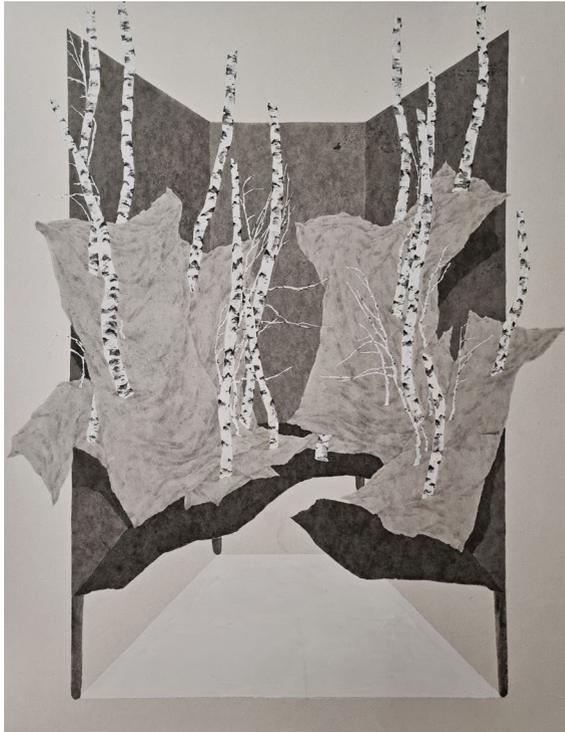
[원하지 않는 풀]

각 75x35cm\_장지에 채색\_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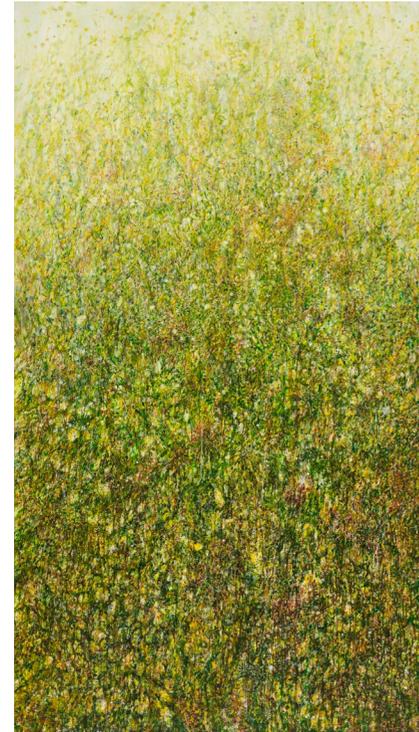
## 이정희 LEE, JEONGHUI

b.1982

절대적인 인간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회화로 담아내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들을 어떤 감정적 잔상이나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존재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섬세하게 담아낸다. 이처럼 작품 속에 그 대상을 담아내기 위해 작가는 긴 시간 그 대상을 들여다보며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러한 관찰과 경험을 시간과 감정을 붓질이 반복적으로 중첩되는 과정에 켜켜이 쌓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작품을 마주하는 이에게 작품에 담아낸 감정과 이야기를 오롯이 전달하여 새로운 유대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머물다 간 자리]  
116.8x91cm\_장지에 혼합재료\_2021



[Elysion]  
194x112cm\_Oil on canvas\_2021

## 이체린 LEE, CHELIN

b.1993

이체린은 매일의 상상과 기억을 통한 감정을 기록한다. 실제의 경험, 저장된 기억, 바로 지금에 대한 감정은 항상 왜곡되고 변형된다. 동시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혼합되고 중첩되며 커다란 덩어리의 형태로 존재한다. 작가는 켜켜이 쌓이고 얽혀 끊임없이 이어진 감정 덩어리들에 집중한다. 불분명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것들은 슬픔과 상처, 행복과 즐거움의 덩어리로 응축되어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덩어리들의 그 순간을 끄집어내어 조각을 맞추듯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 작가는 일기장 같은 기록물을 통해 무한한 다층의 형태를 지닌 존재를 탐구한다.

## 이혜성 LEE, HYESEONG

b.1991

꽃을 품은 식물 더미가 퍼져나간다. 튀어 오르듯 반짝거리더니 이내 서로 파묻히고 뒤엉켜 앓다가 긴긴 어둠에 묻혀버린다. 거대한 순환고리의 일부인 인간의 생과 사를 상기시킨다. 선택지 없이 태어나 마른 풀처럼 바스라지고 마는, 살았는지도 모르게 잊히는, 신이 우리의 양손에 고이 감사 들려준 공허. 헛되이 점철되어가는 일상에서 소멸과 죽음은 가장 강력한 사유의 도구가 된다. 이혜성은 이름 없는 꽃들이 소멸하는 모습을 보며 영생을 떠올린다. 이어서 축복의 땅을 촉촉한 붓질로 쌓아 올리고 속죄와 구원의 신비로 가득한 실낙원을 함께 내건다. 그렇게 유한한 존재에 대한 염려는 피어나고 지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연약한 전신으로 맞서는 귀결의 순간을 그리며, 존재하기에 사라지고 사라지기에 아름다운 모든 생명을 노래한다.

OCI미술관 <Nameless Flowers> 전시 서문(2021) | 이영지(OCI미술관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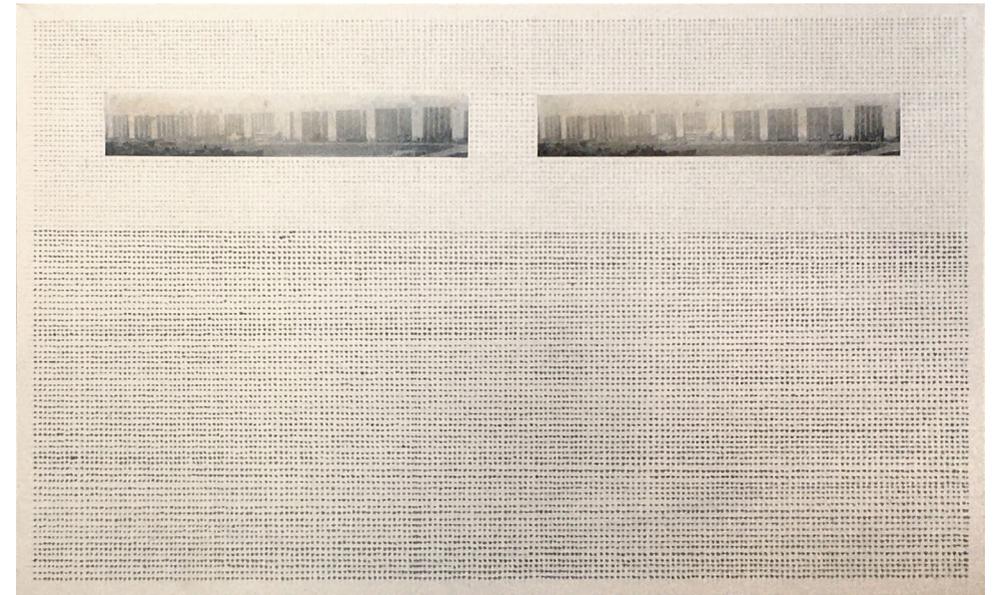
[The Gardener]

112×112cm  
\_캔버스 위에 과슈, 아크릴  
\_2020

## 이희명 LEE, HEEMYOUNG

b.1979

2006년 '중앙미술대전' 수상을 시작으로 2006~2007년에는 국립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가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메르츠의 방>(2006), 서울시립미술관 <Text In Bodyscape>(2007), 성곡미술관 <A's Paradise>(2008), 사비나 미술관 <변신>(2010), 양평군립미술관 <마법의 나라 양평>(2011), 포스코 미술관 <The Great Artist>(2014), 소마미술관 <일부러 불편하게>(2018), 자하미술관 <여성신곡>(2020) 등 5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자하미술관 <서정의 살결>(2019)의 개인전을 포함 총 10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1993년 11월 6일]

65x110cm\_한지에 연필, 먹, 종이에 디지털 프린팅\_2020

## 임장순 IM, JANGSOON

b.1978

임장순은 미국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2020년부터 한국에서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작품 제작과 연구 활동에 집중하며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품들을 주제적/매체적으로 좀 더 정리하며 발표하여 작품 시리즈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창작자로서 작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주제를 보다 확고히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작품의 감상자에게 작품세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전시 등의 작품 공개를 통해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이후 제작될 차기 작품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작가의 작품성과를 추가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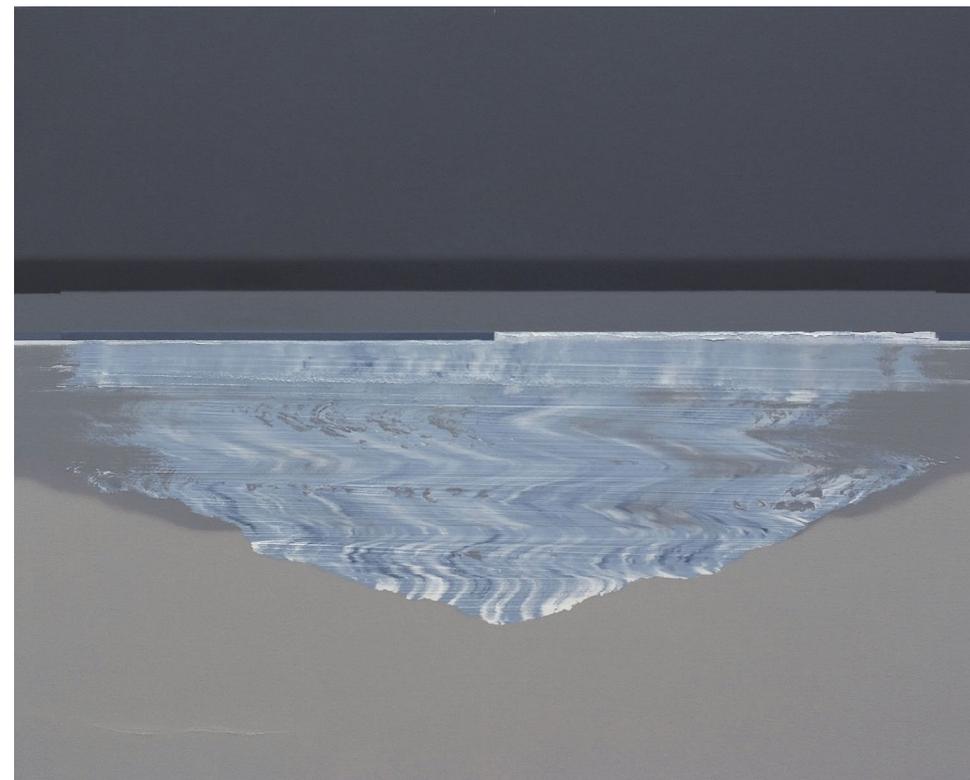
[cut and paste]

가변설치\_다양한 오브제들을 자르고 공간에 배치, 라인 테이프\_2021

## 장입규 JANG, IPKYU

b.1984

장입규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디플롬 학위와 마르셀 오덴바흐(Marcel Odenbach) 교수로부터 마이스터술러를 사사 받았다. 작가는 조각, 사진, 영상, 설치, 뉴미디어 등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는 주로 일상에서 작업의 재료나 소재,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공간, 현상의 미묘한 부분을 뒤틀거나 절묘하게 변형, 왜곡시키는 등 엉뚱하거나 모순적이며, 아이러니한 작품이나 상황을 연출하는 데 관심이 많다. 최근 그는 디지털 편집방식이나 그것의 이미지를 현실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 아날로그 재료와 방식으로 재현하거나 미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이 시대 인간의 시각을 비롯한 감각 지각체계가 디지털의 논리 안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탐구하고, 21세기 초 인간이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과 예술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한다.



[From]

80.3x100cm\_Oil on canvas\_2021

## 전봉열 JEON, BONGYOUL

b.1973

초기에 우연히 본 동트기 전 회색빛 바다를 보며 시작이 된 전봉열의 바다그림은 사실적, 초현실적인 성향을 지나 마흔 즈음 가슴 깊은 곳, 아련히 울컥이는 감정에서 삶과 작가 본인의 연관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 작품으로 제작된다. 2016년부터 현재의 작업을 시작한 작가는 오랜 시간 바다의 수평선에 머무르는 시선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여러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경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접근할 기회를 발견한다. ‘인문학’과 ‘힐링’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사회적 키워드로 나타남에 대하여 그는 인간 내면의 태도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 내면의 공허함에 대한 경각심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그의 작업은 ‘나’ 자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과정이다. 세상의 시간과 내면의 시간을 일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때가 되면 손가락을 들 듯, 자신의 내면을 허기지게 두지 않길, 평행이론이나 연기설(緣起說)같은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자신의 시간을 가져보고 현재로 돌아와 조금은 자연스러운 삶으로 남을 수 있길 바라본다.



[기라는 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130x97cm\_캔버스에 아크릴\_2021

## 전진경 JUN, JINKYOUNG

b.1973

전진경은 대추리, 강정마을, 용산참사, 희망버스, 콜트콜텍 농성장과 같이 한국의 정치사회의 현장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2019년까지 작가는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에 작업실을 만들고 매주 그림을 그렸다. 작가는 마치 기타노동자들과 코윈을 만들 듯이 그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그들이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세워진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고 한마디씩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작업실은 작가에게는 세상이 변하기를 소망하고 연대하고 협업하는 세계였다. - 경기도미술관 <우리와 당신들> 전시 서문(2020) | 이수영(경기도미술관 학예사)

... <천막55>에서 갈등, 혼란, 분노, 희망 등이 일상적인 빗질에 흩러 들어가며 뒤엎기는 상황을 시차를 두고 곱씹고 나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각자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고 반대로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과 온전함을 따질 것 없이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의 고통과 연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닿을 수 있었다.

- 홍태림(미술평론가)



[연마술(Grinder)]

가변설치\_가족, ๸\_FHD VIDEO\_00.09.45\_2022(Photo by 조영하)

## 정기훈 JEONG, KIHOOON

b.1980

정기훈은 시간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수행하지만, 한편으로 의미가 없는 결과를 통해 무용과 유용의 가치를 교란한다. 궁극적으로 쓸모와 효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통념, 기준에 상충하는 개인을 드러낸다. 인사미술공간을 시작으로 금호미술관, 아트라운지디방, 케이크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예술가 프로그램과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을 통해 노동과 시간의 규칙에 관한 내용의 작품을 발표했다. 2010년 송은미술상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천예술공장, 금호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송은아트스페이스, 아트선재센터, 인천아트플랫폼, 벨기에 Ete78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화+서울 2021 | 3월호



[한 지식]

91x91cm\_종이에 연필, 먹, 주묵, 호분, 분채, 젤리디엄  
\_2020

## 정덕현 JEONG, DEOKHYEON

b.1986

정덕현에게 있어 그림은 진실이 머무르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그는 그 진실이 머물지 못하고 떠날까 염려한다. 세상에 대한 거친 이해와 성급한 단정을 자신의 그림이 가속화시킬 수 있던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경계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진실은 삶의 내면에 도사려 있으면서도 온 신경을 오랜 시간 곤두세우지 않으면 쉬이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마음이 바쁜 작가들이 빈번히 놓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에는 포착하기 어려울 것이, 빈번히 놓치게 될 것이 들어가 있을 리 없다.

이미 드러난 것, 인식 속에 있는 것들은 결코 그림이 아닐 것이므로. 우리의 작가는 그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진실을 찾으려 하면서, 찾은 진실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도 의심 끝에 확인된 진실을 또다시 회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좌우충돌의 여정에 그가 밝히려는 ‘그림의 힘’이 있다.

나아가며 정확해지는 진심 | 정희영(기획자)



[Encounter]

130.3x162.2cm\_Oil on canvas\_2021

## 정미정 JUNG, MIJUNG

b.1983

도시의 정지된 적막함을 보여주는 듯 보이는 정미정의 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건축물들 사이로 가로등과 불빛이 보이며,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중첩되어 나타난다. 건축물들 사이로 명멸하는 불빛과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드리워진 그녀의 도시풍경은 마치 슬로우비디오처럼 이미지들이 흐릿하게 중첩되면서 영화의 느린 움직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작가가 작품에 담으려고 하였던 자신만의 추억과 경험, 기억의 실타래들이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위를 흐릿하게 비추고 있는 듯하다.

동탄 아트스페이스 <다다르다> 전시 서문(2021) | 기영미(미술사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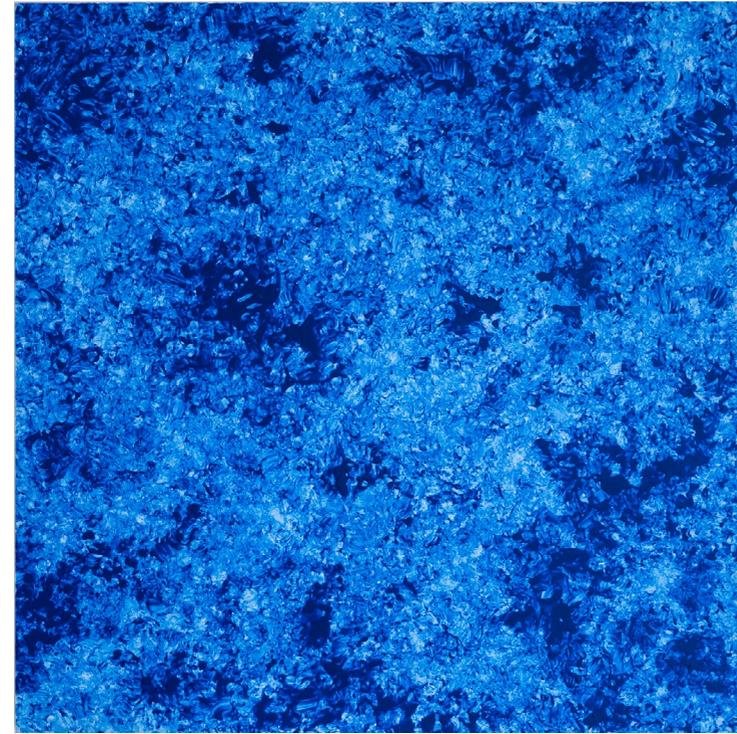


[검정색 털뭉치는 바람에 날린다]  
100.0x72.7cm\_Oil on canvas\_2020

## 정은빈 JUNG, EUNBEEN

b.1997

정은빈은 대상의 본질이 되는 형태와 색, 그리고 질감의 요소를 아주 납작한 차원에서 바라보며 일상 속 풍경, 그 찰나의 잔상을 절제된 표현으로 담아낸다. 그 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 구체적인 자연 이미지와 모호한 도상 이미지를 한 화면 안에 조화롭게 재구성하며 그들이 그려내는 새로운 중간 값의 공기를 탐색한다. 2차원의 캔버스 표면은 더욱 납작하게 만들고, 그 안에 삭제된 공간감을 그림 밖으로 끄집어내 결과적으로 작품에 새로운 공간감이 부여되도록 시도한다. <창밖의 밀실 Viewing Chamber> (더스토어, 2022), <형이하의 다이버전스 #3 Vuja De (문득, 낯선)>(공간 형, 2022), <TORQUE1/ GEAR SHIFT>(실린더, 2021)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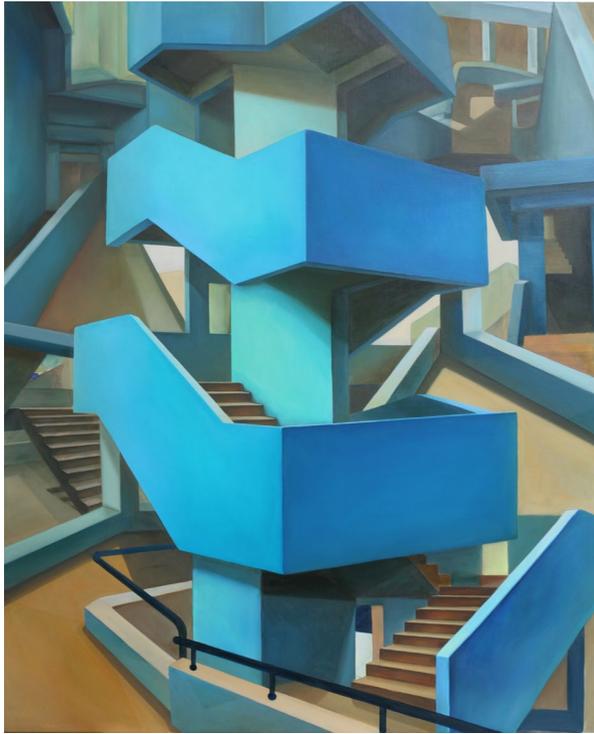


[movement\_pb3]  
120x120cm  
\_Acrylic on canvas  
\_2020

## 정주희 JEONG, JOOHEE

b.1983

정주희는 개인의 사소한 경험에서 포착된 예기치 않은 상황을 사회적, 역사적 인식을 통해 작업으로 확장한다. 작가 자신을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 대상화하여 청년, 여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동시대를 비춘다. 영상과 회화매체를 다루고 있으며 'movement' 시리즈는 작가의 '휴지 던지기' 퍼포먼스를 재현하여 만들어진 흔적들의 결과물이다. 10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한국과 중국 베를린등의 레지던시를 지냈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작업은 아름다움과 꿈직함이 공존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치열한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에 맞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유의미함을 드러내고자 함일 것이다.



[Labyrinth III]  
90.9x72.7cm\_Oil on canvas\_2022

## 정지은 JEONG, JIEUN

b.1980

정지은은 실제 장소에서의 지각 경험을 통해 구축된, 실존적인 공간 인식을 유화로 그린다. 작업을 통해 보이는 공간은 본인이 경험한 공간에서의 실제 감각을 넘은 무의식이 반영되며 새롭게 구축되는 또 다른 세계이다. 학부에서는 디지털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하며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미디어와 인간의 상호 작용을 스크린 기반의 실시간 영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었고, 회화 석사와 박사 과정을 통해 공간 인식에 관한 회화적 표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작가는 앞으로도 지각된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회화와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가상공간에 실재감을 더하기 위한 표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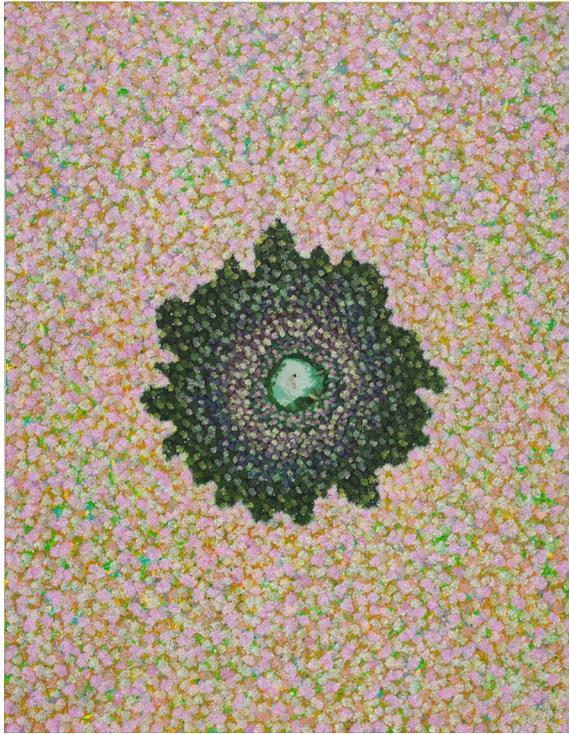
[오늘도 입에  
문걸레를 뺏다]

180x200cm  
\_장지에 호분  
\_2022

## 조정은 CHO, JUNGEUN

b.1996

조정은은 동양화 전공을 살려 캐릭터와 동양화를 함께 접목하는 방향으로 작품 세계관을 꾸러 나가고 있다. 작가는 동양기법을 활용한 마블링이라는 우연의 효과를 가미해 전통적 재료를 담고 있는 한국화와 회화성이 강한 캐릭터 일러스트 사이의 경계선을 탐구하고 있다. 대중의 공감을 기반으로 개인의 내면 세계관을 풀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는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캐릭터, “캣빗”으로 여러 상황과 설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표현한다. 특히, 구체적 대상이 아닌 하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제각각 배경과 서사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캣빗”은 한 개인이 아닌 ‘캐릭터’로, 어느 상황에 던져봐도 스스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장선을 지닌다. 현시대의 감정선을 뽑아 작가 본인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거나, 그 누군가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깊고 따뜻한 숲]  
116.8x91cm\_Acrylic on linen\_2022

## 조태광 CHO, TAEGWANG

b.1980

조태광은 현실 속 대상, 이를테면 자연을 대변하는 나무, 수풀 등의 이미지에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이 의지를 갖는다면 과연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를 골똘히 상상한다. 어린 시절의 향수에서 비롯된 작가의 작업은 현실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상향을 꿈꾸며 자연의 일탈을 화면 가득 채운다. 이러한 비현실적 장치 혹은 장면은 작가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아트비프로젝트 <공존> 전시 서문(2022)

“나의 세계는 마치 유토피아를 상상하듯 미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명랑한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몽환적이고 따뜻한 색감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일상의 디테일은 우리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말한다. 결국 내가 만든 세계는 점차 불안정한 디스토피아로 변질한다. 일러스트 같은 색채와 사물로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편함이 또다시 우리 앞에 현실로 되돌아오고 만다.” (작가노트 중)



[아버지의 숲] 130.3x162cm\_Oil on canvas\_2022

## 주선영 JOO, SUNYOUNG

b.1978

주선영은 다양한 푸른밤을 통해 ‘여명’, ‘초저녁’, ‘은하수’, 또는 완전히 상반되는 폭풍전야(暴風前夜)의 고요하고 청아(淸雅)한 밤하늘 이미지 등을 연상케 한다. <별비> 시리즈 주요 소재인 별은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나 먼지 등이 모여 있는 성운 속에서 탄생한다. 이밖에도 1/수십 초에서 수 초 사이에 빛을 발하는 다수의 유성이 비처럼 떨어지는 유성우(流星雨)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반딧불, 살랑이는 나뭇잎과 잔잔한 물의 발광체는 칠혹 같은 밤하늘을 밝게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빛을 발산(發散)하기 위해 기약이 없는 기다림과 단계들을 걸쳐 영롱한 별빛을 뿜어낸다. 이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미래 철학의 서곡」(1886)에서 “나는 나를 기다린다.” 발언한 것과 같은 부분이다. 여기서 ‘기다림’은 ‘되어감(생성, Werden)’과 같다. “나는 나를 기다린다.”는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갈망하고, 열망한다. 그 속의 많은 시련과 좌절, 갈등 등이 있음에도,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성남큐브미술관 <푸른밤> 전시 서문(2019) | 정윤미(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거울]

65x100cm\_Acrylic on canvas\_2021

## 최정숙 CHOI, JEONGSOOK

b.1977

최정숙의 작업은 새롭고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관객들을 다양한 감정과 독특한 상상 속으로 초대한다. 새로운 이미지는 일상의 지루함을 없애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은 자연 안에 존재하기에 이미지들을 통해 가장 즐겁게 힐링하게 한다. 그는 그림 속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힘,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동물과 자연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 자체로 아름답게 받아들여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개개인의 삶에 담긴 가장 밝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찾아 떠나는 환상적인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이미지에 담고 있다.



[Home]

120x120cm\_한지에 피그먼트\_2022

## 최지원 CHOI, JIWON

b.1991

성남에서 활동중인 최지원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학/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즉흥적 드로잉을 통한 순간의 인상표현'을 주제로 회화적 시도를 하고있다. 개인전 <감정의 뒤편>(대안공간 눈), <과잉 무지개>(갤러리 그리다)로 데뷔하였다. 또한, 팀 아하콜렉티브로 활동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회화, 영상, 설치를 기반으로 한 확장된 미디어로 다루고 있다.

"...'Void 시리즈'에서는 오감을 매개로 외부의 자극들을 화면위에 소환하여 색감과 붓질의 운용을 통해 표현한다. 화면위에서 최초의 장면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해체되기도 하는 과정에는 마주한 상황을 새로이 직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습기에 반응하는 한지위에 피그먼트가 없어지면서 파생될 수 있는 행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작가노트 중)



[A Walk in the Clouds]

27x43cm\_Archival pigment print\_2022

## 한문순 HAN, MOONSOON

b.1976

사진을 주 매체로 활용하는 한문순은 자연환경에서 작업의 영감을 받아 식물, 동물 등의 자연 생명체가 지니는 고유하고 독특한 색채를 포착하고, 평면의 공간에서 입체적 표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관점뿐만이 아닌 오브제 자체 관점이 통일된 시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상자들이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희망한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한 작가는 사진의 현장성을 회화의 형상 이미지에 접목하고 미적 성취를 이루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며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호표도]

97x130x2.6cm\_장지에 채색\_2021

## 한보연 HAN, BOYEON

b.1991

한보연은 불안이라는 감정과 함께 생존해온 인류에 주목한다. 그는 물질적, 정신적 불안 속에서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며 생을 이어가는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확인과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는 자아와의 소통, 종교, 반복 행위 등을 통해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점성술이나 역학, 샤머니즘, 종교 등 오늘날까지 의식과 관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포착한다. 작가는 삶에서 수천 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욕망을 생에 대한 의지로 보고 샤머니즘과 우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자의 욕망과 염원을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이라는 추상을 욕망하며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욕망을 거듭한다. ... 나는 각자의 염원으로부터 개개인의 욕망을 발체하고 그 욕망의 충돌과 혼합을 동식물과 사물로 치환하여 담아내는 것을 작업의 주요 공정으로 삼는다. 쫓고 있는 욕망만큼 겹쳐지는 피곤과 좌악 속에서 얽히고 설킨 각자의 욕망과 간절할 염원을 종이에 옮겨 회화적 장면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작가노트 중)



[당신이 꿈꾸던 The one you dreamed of]

116x182cm\_린넨에 석채와 금분\_2022

## 한혜수 HAN, HYESOO

b.1994

한혜수는 주로 자신(개인)과 타인(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수용의 경험을 파도와 오브제의 관계로 빗대어 표현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타인과의 비교, 나이대별로 달성해야 하는 끝없는 목표들, 그리고 올바른 정치 등에 메어있는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고 있다. 학사 및 석사 과정에서 체득한 우리 전통 회화 방식, '진채'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파도 표현법을 모티브로 삼아 이 메시지를 아름답고 독특한 빛깔로 전달하고자 한다. 현재는 작가의 삶과 맞닿은 청년들의 고민과 방향을 주요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깊고 깊은 그곳 1]

193.9x720cm\_캔버스에 유채, 아크릴채색\_2021

## 황지윤 HWANG, JIYOON

b.1983

황지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BFA), 전문사(MFA)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드로잉의 이해, 기초스튜디오를 강의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 KSD에서 미술상 최우수상, 송암문화재단 OCI미술관에서 OCI YOUNG CREATIVES, 금호미술관 KUMHO YOUNG ARTIST 수상하며 여러 개인전과 기획전시를 통해 작가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선의 풍경화’라는 주제로 서양화의 표현 도구를 사용해 동서양의 풍경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감상자에게는 작품을 통해 화면 안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시키고, 자연 속 형태들로부터 공포나 불안, 유희 같은 심리적 자극을 전달한다. 단순히 몽환적 풍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작품이 감상자를 ‘감시’하는 역설적인 경험과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감상자와 작품의 경계를 지워본다. 이를 통한 개인의 심리적 풍경을 생성하고, 작품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댓큐레이팅**  
**ALL THAT CURATI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20 남한강빌딩 B1층  
atcurating.com  
atcurating@gmail.com

2018년 설립된 올댓큐레이팅 미술기획연구소는 국고예술사업, 전시기획, 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큐레이션 하는 전시기획사이다. 현대미술 전 장르의 예술가와 교류하고 미술계 네트워크를 쌓아가며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 프로모션은 물론 다양한 예술 기획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내부 기획전은 청담동 갤러리에서 진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여러 예술사업을 맡아왔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마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잡지협회, 예술의전당 등 수도권 및 타 지역 문화재단과 예술로써 활발한 소통을 지향하는 전시 콘텐츠를 만들었으며 소통하는 아트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MEEK** **믹**  
**MEEK**

meeK.team (11월 오픈)  
au9036@gmail.com

믹(MEEK)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국내외 구성원들과 함께 비형식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 및 구현하는 창작단체이다. 믹은 동시대적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현시대에 요구되는 예술가적 정서에 소외된 다양한 창작형식을 지속해서 함께 향유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장르, 학문, 나이, 성별의 구분이 없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에 기여하고자 한다.



SAA

에스에이에이  
SAA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499-12층  
screenartagency.com  
info@screenartagency.com

SAA(에스에이에이)는 Screen Art Agency의 줄임말로 스크린 프린트 기반의 프린팅 프로덕션 스튜디오이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판화 공방을 거점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 갤러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화 제작부터 전시기획, 작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문화예술사업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판화공방을 운영하고 있어 시각예술 분야 전공자를 위한 프린팅 프로덕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튜디오 끼  
STUDIO KKI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studiokki.co.kr  
studiokki@daum.net

스튜디오 끼(Studio Kki)는 아트 디렉터이자 크리에이터인 이광기 대표가 운영하는 파주 출판단지 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의 기능과 함께 예술인 발굴을 위한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더해진 경매쇼·아트쇼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중에게 중요한 관람과 컬렉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튜디오 끼는 다양한 미술 사업 기획을 통해 동시대 미술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술 생태계의 경제 활성화와 예술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칸  
KAN**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20  
 경기도 성남시 위례한빛로 39-13  
 kanarts.com  
 officemuseum.co.kr  
 kanarts2021@naver.com

칸KAN(Korean Art masterplan Network)은 지난 18년간 정부기관 및 기업의 공간조성을 위한 아트 마스터플랜 및 미술작품 기획에 주력해온 창조기업이다.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건축 등을 전공한 아티스트, 디자이너, 건축가 등 각 전문가들의 협업시스템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관-기업의 미술품 가치 측정 및 운영방안을 비롯하여 공간에 걸맞은 미술작품과 조형물을 기획, 조성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



**ARTPLACE. (주)아트플레이스  
ARTPLACE**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89  
 artplace.co.kr  
 artplaceseoul@naver.com

아트플레이스는 한국 현대미술 프로모션을 목표로 미술, 디자인,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국내외 전시기획, 아트 콜라보레이션, 문화행사 운영, 학술연구, 브랜딩 및 통합 마케팅까지 다양한 예술 사업을 주도하는 전시기획사이다. 예술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기획하고 있는 아트플레이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경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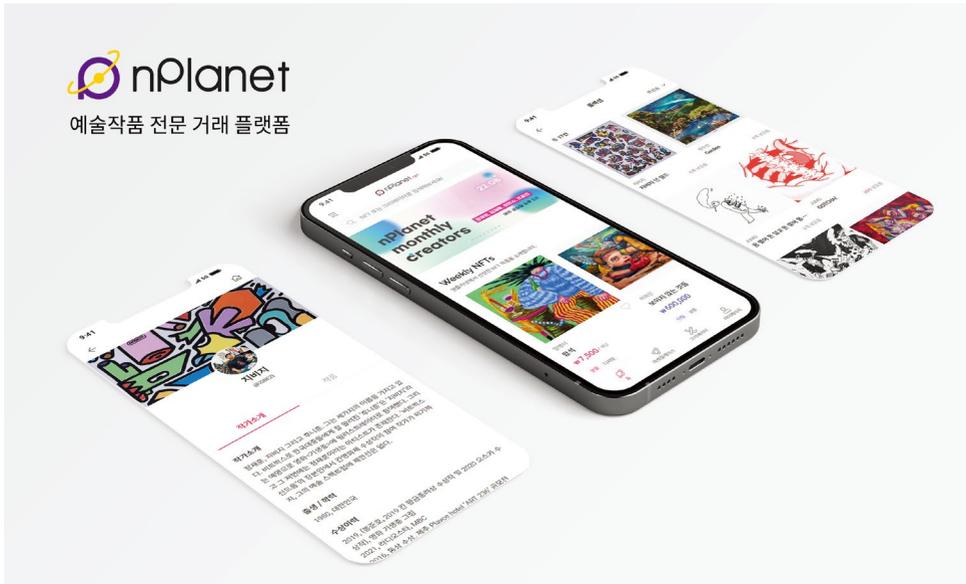




**바른손랩스**  
**BARUNSON LABS**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3층  
nplanet.io  
help@barunsonlabs.com

바른손랩스는 바른손의 자회사로 미술품 거래 플랫폼 ‘엔플라넷’을 운영 중이다. 엔플라넷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작품 거래 시스템과 전문적인 큐레이션을 기반으로 작가들의 원활한 미술 시장 진입과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진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아티스트를 후원하고 있으며, 신진작가부터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아티스트 토크, 전시 리뷰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여 미술 작품을 더욱 친밀하게 감상하고 컬렉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헤럴드아트데이**  
**HERALD ARTDAY**

(헤럴드아트데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헤럴드아트데이 광고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277  
auction.artday.co.kr  
info@artday.co.kr

누구든지 함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헤럴드아트데이는 미술품경매, 기획전시, 공공미술, 교육, 전시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문화미디어 기업으로, 다양한 문화 및 미술 시장을 대변하는 문화예술 아이콘이다. 또한, (주)헤럴드의 자회사로서 70년 전통의 국내 최고 영어신문 'The Korea Herald'와 국내 첫 대중경제문화지 '헤럴드경제' 등의 언론 매체와 연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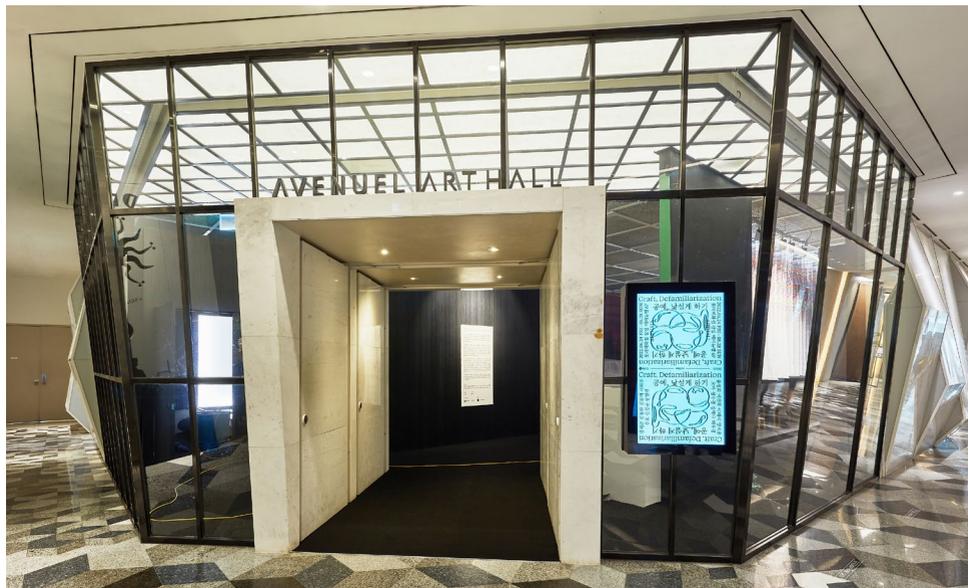


롯데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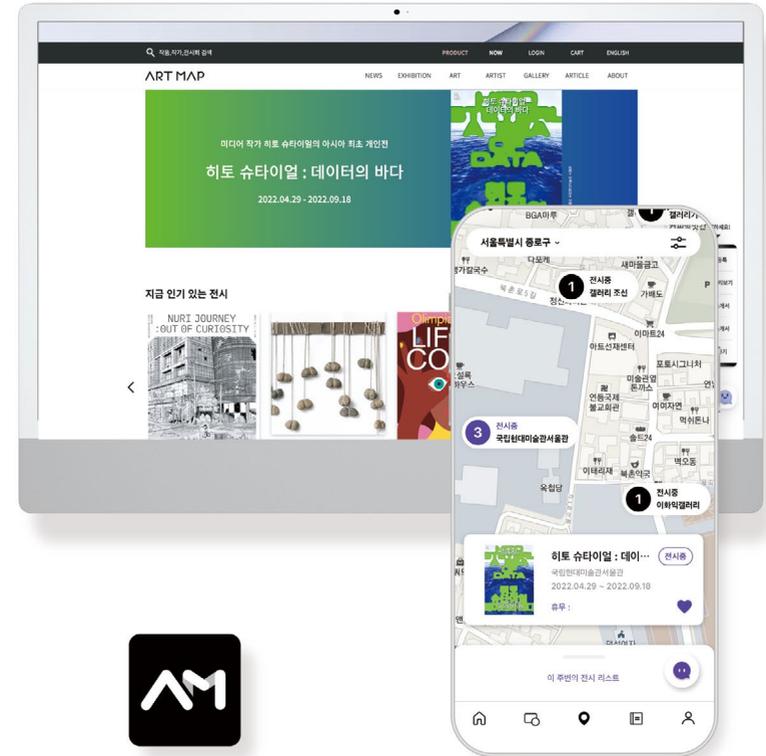
LOTTE DEPARTMENT STORE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1)  
lottegallery.com  
1577-0001

롯데갤러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국 최대규모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5개 지역 내 총 10여 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롯데갤러리는 회화, 조각, 사진 등 미술만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 건축 등 폭넓은 장르의 동시대 트렌드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 ART MAP



세상의 모든 전시,  
아트맵과 함께하세요.



art-map.co.kr



## •아트경기 채널 안내

인스타그램  
@artgg\_official

아트경기 최신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자

홈페이지  
artgg.ggcf.kr

2022 아트경기  
한 눈에 살펴보기

경기문화재단  
ggcf.kr

경기문화재단 운영  
공식 홈페이지

지지씨  
ggc.ggcf.kr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2022 아트경기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22.09.16.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재)경기문화재단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 원준호 (예술진흥실장) 최보경 (예술진흥실) 구소라 (예술진흥실)
주소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37~8
이메일	artgg@ggcf.or.kr
홈페이지	artgg.ggcf.kr
디자인	아트맵